

## 독신가구의 주거선호실태

박 경 난(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1인 가구의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독신가구의 주거요구를 파악하는 조사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결과가 독신거주자가 소형아파트를 다른 주택유형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독신자는 주거기능을 겸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인 일시적 1인가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현 주택시장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제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그룹이 일시적인 주거로서 역할하는 것과 달리 독신가구는 개인의 삶의 안정적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주거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은 주택소유 및 공유의식, 희망하는 주택규모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신가구는 독립적인 침실공간이 확보, 휴식공간으로서의 욕실, 부엌설비, 주차장의 확보, 옥외공간확보면에서 주거기능이 미비하고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의 비율은 더 낮고 주거비부담은 더 큰 오피스텔보다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30대가 76.9%, 40대가 23.1%로 40대가 적게 표집되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대의 비율이 13.3%로 30대에 18.7%보다 적으나 1990년 이후 증가율이 두드러져 1인가구중 40대의 비율은 1인가구의 증가율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에서 40대의 비율이 더 높게 하였다면 더 정확한 요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소득계층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표집대상과 범위를 정하였다면 실질적인 주거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독신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선호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정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개발보다 유사한 주거요구를 갖는 거주자그룹을 상징하는 주택개발이 이동성이 크고 개별거주자의 요구의 다양성에 대응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독신가구, 일시적 1인가구, 아이가 없는 부부, 은퇴한 노인가구는 생활지

원서비스의 요구측면에서 일단의 거주자그룹이 될 수 있다. 연구자가 제시한 계획방향인 소형화, 정보화, 고기능화, 여가화에는 동의하며 연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독립된 침실, 욕실, 컴팩트한 부엌, 개인의 요구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다목적실을 갖는 소형주택중심의 공동주택을 교통의 요지에 개발하는 계획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공동주택단지는 생활특성을 고려한 부대설비와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독신가구의 주거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